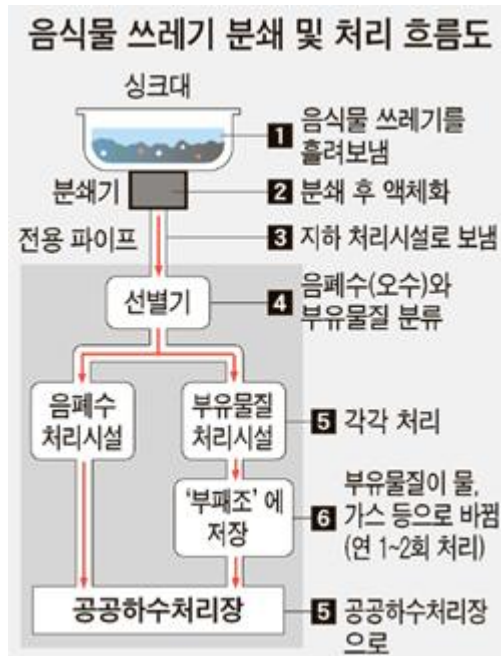


음식쓰레기 갈아서 배출 ... 시범운영서 일단 합격점

“싱크대서 해결, 악취 없고 편리”
“오수 새나가 수질 오염” 지적도



음식물쓰레기 처리는 주부에게는 번거로운 일이다. 다른 쓰레기와 분류해야 하고, 집 안에 보관해 뒀다가 주로 야간에 따로 배출해야 하기 때문이다. 음식물쓰레기 통을 들고 엘리베이터에 타기라도 하면 악취 때문에 이웃의 따가운 눈총을 받기 십상이다. 여름이면 그 불편이 더 심해진다.

서울시는 주부들의 이런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 2월 말 노원구 공릉동 대주피오레(191세대)를 대상으로 ‘분쇄기를 이용한 음식물 하수 처리 방식’을 3개월간 시범운영했다. 각 가정의 주방 싱크대 밑에 오물분쇄기를 설치, 음식물을 흘려보내는 즉시 분쇄해 배출토록 한 것이다. 여기서 배출된 오수(汚水)는 아파트 지하 등에 마련된 시설에서 처리과정을 거친 뒤 공공 하수처리장으로 보내진다. 서울시 김경중 자원순환담당관은 3일 “주민을

상대로 모니터링한 결과 가정은 물론 아파트 내에도 음식물 악취가 사라지고, 분리수거의 번거로움도 없어져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강서구 서광아파트(286세대)에도 분쇄기 처리 방식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번에는 ‘분쇄 후 직배출’ 방식으로 운영된다. 하수처리장 인접 지역이라 별도의 처리시설이 필요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분쇄기를 이용한 음식물 하수 처리가 일반화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 흘러나온 오수가 하수관을 통해 새나갈 수도 있어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다고 환경단체들은 반대한다. 음식물쓰레기의 자원 활용 가치가 높다는 의견도 있다. 환경부 폐자원관리과 최성락 주무관은 “음식물쓰레기의 94%가량은 재활용 원료로 쓰인다”고 말한다. 아직까지 국산 오물분쇄기가 없어 관련 법령이 마련되더라도 세대당 150만원 정도 드는 비용을 어떻게 처리할지도 문제다. 분쇄기를 이용하는 데 전기가 많이 소모된다는 지적도 있지만 한 달에 0.7kW, 금액으로 치면 100원가량 더 나오는 셈이어서 큰 걸림돌은 되지 않는다.

서울시 김 담당관은 “주방용 오물분쇄기 보급이 제도화되면 환경 분야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뿐 아니라 악취 발생과 미관 저해 요인이 줄고 주부들이 편리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다.

임주리 기자

 인쇄하기

 취소